

칼럼



정기연 전 영암신복초등학교 교장

국기계양대의 새마을운동기 유감

전국의 각 기관이나 학교 마을 기업체에는 국기 계양대가 있으며 거기에는 세 개의 깃대봉이 있고 가운데는 태극기 오른쪽에는 새마을운동기 왼쪽에는 소속기관 단체의 기를 계양하고 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에는 국기계양대가 있으나 운동권에서 새마을 기를 철거하라는 요청에 따라 정부기관(광주광역시청 전, 시장윤장혁)에서 새마을운동기 내렸으며 덩달아 각 구청에서도 새마을운동기 내리게 해서 빈 깃대봉만 초라하게 서있다.

시의회가 광주시 경제를 생각한다면 경제를 상징하는 기를 공모하여 경제기를 만들어 계양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새마을운동기 경제적으로 내리러한 지자체는 광주광역시뿐이다.

국가가 발전하려면 정치를 잘 해야 하며 그에 따른 경제가 발전해야 하는데 경제 발전은 국민의 희망이며 새마을 운동기는 한국 경제를 상징하는 경제기이다. 광주광역시 지역발전의 경제에 관심이 있다면 국기 계양대에 경제를 상징한 경제기를 만들어 계양해야 한다.

새마을운동과 새마을운동기를 옹호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반대를 하는 사람은 반대의 이유를 설명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살기운동을 펴려면 구심적인 경제 상징의 기를 만들어 계양해야 하며 그러지 못한다면 새마을운동기를 계양하는 지자체를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새마을운동은 우리나라가 가난을 극복하고 잘 살기 위해 노력한 국민운동이다. 새마을운동은 60~70년대 우리나라 농촌에서 잘

살기 운동으로 전남 농촌(고흥)에서 시작한 국민운동이며 이를 당시 박정희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정부 주도도 운영하였으며 군사정부가 물러나고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민간주도로 새마을운동이 추진되었으며 동남아 아프리카의 후진국에서 경제개발을 위해 우리나라 새마을운동 방법을 배워가고 있다.

이러한 새마을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의 3대 기본정신에 혁신, 창조, 변화의 새로운 뉴 새마을운동으로 발전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운동권 일부 단체가 계양된 새마을기 사비를 걸자 관계 처에서는 계양된 새마을기를 내려 서랍 속에 넣어 버리고 방송은 이를 보도했으며 새마을기 계양대는 기 없는 깃대만 서 있다.

그렇게 새마을 운동이 우리 국민을 못살게 했는가? 새마을기 유신독재 박정희의 유물인가? 새마을 운동은 박정희 유물이 아니라 가난을 물리치고 경제를 일으킨 우리 국민의 땀 정신이 깃든 희망의 깃발이다. 새마을운동기

를 내려 서랍 속에 들어가게 한 운동권 사람들은 새마을운동기 아닌 국민을 감동하게 하고 새로운 경제를 일으킬 새로운 국민운동을 만들어 계양하게 해야 할 것이다. 새마을운동이 유신독재나 박정희의 신물이란 생각은 접어야 한다.

새마을운동은 우리 국민이 이룩한 위대한 경제 혁명운동이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게 잘 사는 덴마크는 국토를 개발하고 경제를 일으킨 그룬트비와 달가스의 개척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이어받아 겸손하면서도 행복하게 잘 사는 자랑스러운 국가인데 우리는 역사 속의 새마을운동 정신을 같이 후손이 이어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랍 속에 넣어 역사 속에 묻혀 버리자는 것인가? 무엇이 나라를 사랑하고 후손에게 물려줄 역사적 산물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덴마크는 우리나라처럼 부존자원이 없는 국가지만, 경제개발을 위한 국민운동으로 작은 정부, 겸손한 국회의원은 세계의 모범이며 덴마크경제발전을 상징하는 경제기를 국민이 사랑하며 계양하고 있다.

가난은 부자의 밀천이라 한다. 가난을 모르는 신세대에게 가난을 물리친 조상의 정신을 일깨운다는 차원에서 새마을 기는 의미가 있다. 새마을운동 기는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자는 국민의 희망이 담긴 녹색 기다. 이러한 새마을운동 기를 대책도 없이 깃대봉에서 내리게 한 지자체는 반성해야 한다.

社說

분노 유발자 광주 복구의회

광주 복구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어섰다. 복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배우자 명의로 구청에서 막대한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행한 백순선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이라는 경징계를 결정했다.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동료 의원에 대한 온정주의만 있었다. 이번 윤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출석정지'를 비(非)민주당 의원들은 '제명'을 주장했으나 결론은 솜방망이였다.

복구의회의 동료 의원 감싸기는 작년 고점례 의장의 허위 출장 사실이 밝혀졌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복구의회는 당시 고 의장에게 겨우 열흘간 출석정지라는 징계로 비리를 봉합했다. 당시에도 주민들은 고 의원에게 의장직 사퇴를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그는 시간끌기로 버티다가 결국 전반기 의장직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주민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

복구의회는 앞으로도 동료의

원들을 줄줄이 징계해야 한다. 먼저 고향 선배가 운영하는 업체의 납품을 지원하기 위해 복구와 다른 지역 관공서에 압력을 넣은 선승연 의원부터 견직 신고를 위반하고 쫓집을 운영하며 복구정에 쫓을 판맹한 의원 두 명 등 수두룩하다. 여기에도 민주당 소속 모 의원은 복구의방역·소독 업무와 관련해 특정업체가 수의계약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해당 의원이 추천한 업체는 결국 복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알고보니 이 업체는 현 광주시의원의 친인척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또 다른 민주당 소속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이처럼 의회의 위상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추락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솜방망이 징계'와 '제 식구 감싸기'로 버티면서 그들은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 이에 주민들의 분노가 한계에 도달했다. 복구의회가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의회 스스로 엄격한 자정노력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생활정보전화

-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 응급질병상담 1399
-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 여성 긴급전화 1366
-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 기상예보 131
- ▲ 법률구조상담 132
-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 수도 고장신고 121
- ▲ 전기고장 신고 123
-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기 0021 (일반)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기자재보 (062) 971-7400
팩스 (062) 222-5547

회 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62가길 16-1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자

코로나 19 장기화로 한동안 외출을 삼가던 많은 사람들이 찜통더위와 함께 전국 해수욕장이나 유원지, 계곡 등에 피서객들로 붐빌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간('15 ~ '19) 물놀이 사망자 현황을 보면 7월 57명, 8월 92명으로 가장 많다.

장소별로는 하천(강)에서, 연령대별로는 10대 이하에서 가장 많은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시기적으로는 주말(토·일요일)에, 햇볕이 내리쬐는 12시부터 증가하여 14~18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은 국민

모두가 물놀이 사고예방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가장 중요하므로 ▲수영 전 준비운동을 하고 ▲물에 들어가기 전 심장에 서 먼 부위(다리, 팔, 얼굴, 가슴 등)부터 물을 묻히고 ▲식사 후에서 곧바로 물에 들어가지 않는 등 물놀이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수영금지 등 위험 표지판이 있는

장소에서는 물놀이를 피해야 하며, 현지 안전요원 또는 안내표지에 따라 사고 발생우려가 없는 안전한 지역에서 물놀이를 즐기도록 하자.

또한, 입수 전 바다의 상황을 파악하고 수면부족 시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음주 후 수상활동은 절대 하지 않으며 충분한 수분섭취에 유의하자.

정예주/보성119안전센터 소방사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군더더기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